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상담' 호응

전남체육회 오는 29일까지 7회 실시

전라남도체육회가 시행중인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상담'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선수(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교육의 일환으로 최근 스포츠인권 교육 우수 시·도체육회로 인정받은 전남체육회가 사업 예산의 전액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시작했다.

22일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012년 스포츠인권 향상 '찾아가는 교육·상담'이 시행중이다.

도내 24개교 9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엘리트 선수들의 스포츠인권 교육에 대한 지식을 크게 함양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엘리트선수 출신 교수 및 현장 지도자, 스포츠심리학과 생리학을 전공한 일선 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 풀을 적극 활용



전남체육회가 오는 29일까지 시행중인 '찾아가는 교육·상담'이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순천북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육.

용한 색다른 교육방식이라는 평이며,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교육은 지난 13일 순천대 강의

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은 정구, 양궁부 선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 풀 강사인 안용준 전남도청 펜싱부 감독이 나섰다.

이외에 14일 순천북초와 순천남

산초 야구선수들, 20일 순천공고 운동부 200명, 21일 전남기술과학고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순천공고에서의 교육은 참여한 럭비와 씨름, 유도, 태권도, 우슈콩푸 종목 선수들이 활발히 질의응답을 하는 등 교육 열의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엘리트 육성에 있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교육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 육성에 대한 체계가 더욱 확립되고, 우리도 체육인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도움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전라남도체육회는 27일 해남제일중에서 펜싱 선수들(강사 박종욱 교수), 2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시청각실에서 사이클과 톨러 선수들(강사 안용준 감독), 29일에는 세한대학교 체육관에서 세한대 운동부 380명을 상대(강사 김갑룡 교사)로 각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20.2 X 13.0 cm

도체육회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 호평

29일까지 총 7회 실시

전남도체육회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선수(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012년 스포츠인권 향상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오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도내 24개교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도내 엘리트 선수들의 스포츠인권 교육에 대한 지식을 크게 함양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대 정구·양궁부와 순천북초·남산초 야구 선수들이 1~2회 교육을 받았다.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남기술과학고 배드민턴팀, 27일 해남제일중 펜싱팀, 2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시청각실에서 사이클·롤

러팀, 29일 세한대 운동부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체육회가 최근 스포츠인권 교육 우수 시·도체육회로 인정받아 사업 예산 전액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엘리트선수 출신 교수 및 현장 지도자, 스포츠심리학과 생리학을 전공한 일선 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 풀을 적극 활용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 과정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있다.

/김기식 기자 pj21@kdaily.com
15.3 X 7.3 cm